

제26회

평신도주일자료

기간 : 2017년 9월 10일(주일)~16일(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신도부

목 차

I . 행사자료	
1. 실천목표	3
2. 행사 진행방향	3
3. 행사자료	3
4. 주간행사 계획표	4
5. 행사평가	5
II . 메시지	
1. 우리가 서야 할 자리 / 총회장 신상범 목사	6
2. 그리스도의 향기 / 평신도부장 심천식 목사	11
III . 첨부서류	
1. 현수막 견본	17
2. 결과보고서 양식	18

제26회 평신도주일

I. 행사자료

1. 평신도주일 실천목표

본 교단 제47회 총회가 제정 공포한 평신도주일이 금년에 제26회를 맞이하게 된다.

평신도주일은 하나님의 백성(Laos)인 평신도들 모두가 교회의 주체인 동시에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교회부흥과 이 세상 구원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므로 평신도의 바른 양육을 통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케 하고 평신도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데 있다.

가. 평신도주일 / 2017. 9. 10(주일)

지교회에서는 2~3주 전부터 평신도주일을 주보에 홍보하고, 선포하여 전 평신도들이 평신도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나. 평신도주간 / 2017. 9. 10(주일) - 16(토)

각 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교회실정에 맞게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다. 실천목표

주일오후예배, 수요일예배 시 평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평신도주간을 지킨다.

2. 평신도주일 행사 진행방향

가. 평신도주일 예배와 주간행사를 위해 담임목사와 각 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행사를 선정하고, 진행순서는 가급적 평신도들이 담당하도록 배려한다.

나. 지방회 평신도부장 초청, 감찰회별 강사 상호교류, 평신도 지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간증을 듣도록 하되 주일 오후나 수요일예배 시에 실시한다.

예) 세미나 주제 - 평신도와 직업, 평신도와 건강, 평신도와 사회생활, 평신도와 인간관계

다. 평신도주일 예배 시에 평신도들이 사회, 성경봉독, 특송, 헌금기도, 광고 등의 순서는 분담하도록 한다.

- 예배 후 평신도 주일을 기념하는 다과회 및 기념촬영을 한다.
- 평신도 각 기관장들이 모여 평신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3. 평신도 주간 행사자료

가. 교회부흥에 관련된 행사

- 특별기도회, 구역별 각종경연대회, 청지기 수련회, 초신자 환영회, 낙심자

심방

나. 교역자와 평신도의 친교행사

- 탁구대회, 은퇴교역자 및 장로 위로회, 대화의 광장, 등산대회

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

- 자연보호 캠페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
- 지역간의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 사랑의 폐품활용 운동

라. 평신도 총력전도를 위한 행사

- 전도전략 세미나, 전교인 노방전도, 우리가족 총동원 운동
- 내가 은혜받은 간증(15분), 교회주변 미화작업, 교회 대청소

바. 평신도와 선교사를 위한 행사

- 해외선교사초청 간증설교, 해외지원교회 성장보고, 해외선교사와의 서신 교환

4. 2017년도 평신도 주일 및 주간행사 계획표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지교회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시행한다.

일 자	행 사 명	세 부 내 용
9/10(주일)	평신도주일예배 (주일오후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 주관예배 • 사회, 기도, 광고등의 순서를 평신도들이 담당한다.
9/11(월)~16(토)	특별새벽기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 수련회를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해 •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 교회와 가정을 위해
	평신도 신앙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와 직업 • 평신도와 건강 • 평신도와 사회생활 • 평신도와 인간관계
	평신도 특별간증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평신도지도자를 초청 간증 • 청지기 특별 훈련 • 내가 만난 주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 • 소년 소녀 가장 돕기운동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위로회 • 사랑의 폐품 활용 운동

일 자	행 사 명	세 부 내 용
9/11(월)~16(토)	평신도 신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를 위한 성서연구 • 직장선교회 활동 • 소그룹 구역활동 • 평신도 신앙수련회
	평신도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기도회 • 지역사회 환경미화 • 체육대회 • 각종 전시회

5. 행사평가

- 가. 강사선정, 회중참여, 예산집행, 기관협력, 유인물, 기록사진, 제반사항 등을 분석 평가하여 자료로 보관하고, 내년도에 참고하도록 한다.
- 나. 금년도 총 주제에 알맞게 평신도주일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총회 평신도부로 보고하도록 한다.
- 다. 평신도주일 행사를 성실히 잘 지킨 교회에 대해서는 한국성결신문 또는 활천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한다.

II. 메시지

[평신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

고린도전서 4:1-5



총회장
신상범 목사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명함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명함에 쓰인 이름과 여러 직함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성결가족 여러분 가운데서도 평신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등을 날마다 직접 보며 체험하여 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해갈했고, 날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선한 만나를 먹었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뜨거운 사막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등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등을 보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퍼부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며 저들이 가진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평신도가 가진 영광스러운 신분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우리 모든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 라는 말은 오늘날 직분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①그렇다면 일꾼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꾼은 주인에 대칭되는 말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옛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일꾼의 개념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일꾼’ 이란 단어는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일꾼의 원어인 ‘휘페레타스(υπηρετας)’ 란 노예선 맨 하단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장의 명령대로 배를 젓는 노예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낸 영화이며,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인 벤허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벤허가 반역죄로 몰려서 로마 해군의 함대에 끌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쇠사슬에 발이 묶인 노예들이 복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데, 복을 느리게 치면 느리게 젓고, 빠르게 치면 빠르게 젓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노를 젓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설명할 때 바로 이 광경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종이 되어 죽도록 일했어야 하는데,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써 영원토록 소망 없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죽음의 올무에서 구속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주의 일꾼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니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구멍가게 주인의 일꾼은 사환입니다.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은 사장입니다. 그것도 힘 있는 사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들은 한마디로 실세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왕의 일꾼, 임금님의 심부름꾼 엄청나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일꾼으로 문제를 해결하러가는 암행어사(暗行御史)는 잠자는 곳이 누추하고, 입은 옷이 남루해도 그의 자부심과 위세는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임금님의 일꾼이니깐요.

우리는 과연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는 태도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인 성(평신)도는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위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학력 란에 00교회의 베델성서대학 졸업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셨던 황교안씨는 지금껏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장관, 총리로 있을 때는 나중에 목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는 3가지 끈이 있다고 합니다. 일꾼과 말꾼과 구경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끈에 속합니까? 일꾼은 말보다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주인이지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오직 명령권 자에게 순종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아주 중요한 특별한 신분의 종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충성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의 바른 자세는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

의 열매 중에 <충성(忠誠)>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진정으로 받은 자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일꾼인지, 아니면 말로만 일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자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충’ 자를 보면 (忠) - 충(中-가운데 중) 심(心-마음 심)으로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 배가 바다를 항해 할 때 무거운 짐은 배 아래층에 싣습니다. 무게 중심을 배 밑 부분에 두어 웬만한 파도에도 요동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밑이 무겁고 견고하면 배가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복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뎅이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기울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야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든든한 반석입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때때로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비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가 닻을 바다 속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듯이,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로서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칭찬이 주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비밀에 감추

어졌던 모든 것이 밝히 들어날 때가 되면 칭찬받을 사람과 책망 받을 사람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현실에서 받는 칭찬과 보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해 주고,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런 평신도는 현실적인 보상보다는 종말적인 보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각각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가져오게 하여 계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영광스러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후 2017년 9월

총회장 신상범 목사

II. 메시지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16절



평신도부장
심천식 목사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휘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언제나 나라에 제일가는 화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림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휘종 황제는 궁중의 화가들을 모아놓고 종종 그림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황제가 직접 그림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은 보통 유명한 시(詩)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황제는 화가들을 모아놓고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제목은 『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밭굽에서 향기가 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꽃밭을 지나가니까 떨어진 꽃들이 말밭굽에 밟혀서 꽃향기가 말밭굽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화가들에게 말밭굽에 묻은 꽃향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코로 맡아서 아는 것이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향기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화가들은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꽃이나 말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겠는데 말밭굽에 묻은 꽃향기만은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림에 손을 못대고 찢찢 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한 젊은 화가가 황제에게 그림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화가들의 눈이 일제히 그 사람의 그림 위로 쏠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달리는 말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 한 마리의 꿈무늬를 나비떼가 뒤쫓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말밭굽에 묻은 꽃향기를... 쫓아가는 나비떼가 대신 말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착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향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만을 눈으로 보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있는 곳에 모여드는 나비는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향기를 보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는 말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좋아하는 곤충이나 사람들이 모이거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향을 좋아하는 벌이나 나비들이 모여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냄새라고 해서 다 향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끌리는 향기도 있지만 다시는 맡고싶지 않은 악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취를 맡게 되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 냄새를 감추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향수를 뿌리거나 좋은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좋은 냄새를 풍기며 산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냄새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했습니다. 장미를 손에 들고 있으면 장미향이 나고 백합을 가지고 있으면 백합꽃의 향기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이 정한 평신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신도... 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교역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하는 것부터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약에서 제시하는 평신도의 세가지 유형을 유추해 보면...

하나는 에스라시대의 ‘언어를 상실한 평신도’ 입니다.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거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고, 전문직 제사직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고전어로 집필된 모세율법을 읽을 수가 없던 그런 때에 에스라는 저들에게 모세율법을 강론하고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때 저 유명한 에스라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들인데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평신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평신도’ 입니다. 지나친 모세 율법의 강요와 세분화된 율법의 요구

에 놀려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걸머지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께서 깊이 동정하셨던 유형의 평신도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대비적으로 한데 묶어서 ‘거리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의 묶음을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그것과는 다른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계시록 1:6, 5:10, 20:6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라는 이 개념이 전문직의 성직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지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와같은 사상이 신약에서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취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약에서 말하는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언급된 내용 그대로 이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전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 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 읽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평신도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양분법에 의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누는 개념보다는 성직자를 포함한 교회 전체의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평신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신도라 할 수 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한 평신도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언제나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요, 셋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가 머무는 곳

에 우리도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가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언제나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처럼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런 시련과 환란이 와도 넘어지거나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였고, 요한1서 5장 4~5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여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언제나 이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의 달콤한 향기를 퍼지게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향기는 그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

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밝은 향이요, 유익하고 힘있는 향기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향수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향수를 사지 않았어도 향내가 납니다. 갈비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비를 먹지 않았어도 몸에서 갈비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첫째 향기를 발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 믿는 향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을 발할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본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또한 귀한 일이다” 라고 하여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또는 “소금” 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고 하여 제 구실을 못하는 소금은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짠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듯 주님께서서는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향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면서 겪은 일입니다. 병원 현관에는 꽃집이 있어서 장미를 팔기도 하고 백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미보다는 백합을 많이 사 간다고 합니다. 청초하기 때문에... 누가 백합꽃을 사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한송이 백합이 금방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금방 떨어진 백합을 지나가던 사람이 반쯤 밟아서 웅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심코 주워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최후로 한번 풍기는 백합의 향기는 지상의 다른 어느 것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상의 백합 가운데 그토록 아름답고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매를 맞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을 백합보다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치운다고 향기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었던 곳에는 꽃을 치워도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그가 떠난 후에도 향기가 남아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뜻으로 쓴 말이지만 읽을 때마다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는 그가 떠난 후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후 2017년 9월

평신도부장 심 천 식 목사

III. 첨부서류

1. 현수막 견본

제26회 평신도주일

주간 : 2017년 9월 10일(주일) - 16일(토)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2. 결과보고서

수 신 총회 평신도부장

제 목 제26회 평신도주일 주간 행사

1. 평신도주일 주간행사 결과보고

행사명	일 시	장 소	비 고

2. 기타(특기사항)

2017년 월 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 교회

담임교역자 ○ ○ ○ (인)

평신도주일 자료집

발행일 : 2017년 8월

발행처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신도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4길 17

전화 (02) 3459-1100 / FAX (02) 3459-1091